

신진서 9단, 국수산맥 우승 국제대회 타이틀 3개로 늘려

디펜딩 챔피언 변상일 9단 상대 176수만에 백 불계승



신진서 9단이 지난 대회에서의 패배를 설욕하며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신 9단은 15일 전라남도 영암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 8회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결승에서 디펜딩 챔피언 변상일 9단을 상대로 176수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이로써 신진서 9단은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춘란배에 이어 3번째 세계대회 타이틀을 획득하게 됐다.

신 9단은 이밖에 ▲KBS배독양전 ▲SG배 명인전 ▲쑤팔 코사놀 최고기사 결정전 ▲용성전 ▲GS칼텍스배 프로그전 등 5개 국내대회 타이틀도 보유중이다.

변상일 9단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25승 7패로 더욱 차이를 벌이게 됐다. 결승 무대 전적도 5전 4승으로 앞서가게 됐다.

신 9단은 16강전에서 사실상 결승으로 주목받았던 중국 미위팅 9단과의 대결에서 승리했고, 이후 김지석 9단(8강), 박정환 9단(4강)을 차례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국수산맥 세계프로최강전의 우승상금은 7500만원, 준우승상금은 2500만원으로 제한시간 30분, 40초 초읽기 3회로 진행되는 속기 대회다.

제8회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는 전라남도, 전남교육청, 강진군·영암군·신안군이 공동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하며 한국기원과 전라남도바둑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김민재, 세리에A 데뷔전서 평점 7점

스팔레티 나폴리 감독 “쿨리발리를 다시 보는 듯 했다” 칭찬

한국 국가대표 ‘괴물 수비수’ 김민재(26·나폴리)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르며 호평받았다.

김민재는 16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베로나의 스타디오 마르칸토니오 벤벤토디에서 열린 엘라스 베로나와의 2022~2023시즌 세리에A 1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뛰며 소속팀 나폴리의 5-2 대승을 도왔다.

2021~2022시즌 정구리그 3위에 올랐던 나폴리는 개막전서 승점 3점을 획득하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지난달 페네르바체(튀르키예)를 떠나 나폴리로 이적한 김민재는 데뷔전에서 기대 이상으로 맹활약하며 이탈리아 무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탄탄한 피지컬을 앞세워 상대 공격을 막아냈고, 전반 13분에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공격에 가담하는 적극성도 보였다.

한국 선수로는 안정환(은퇴), 이승우(수원 FC)에 이어 세 번째 세리에A 데뷔며, 수비수로는 처음이다.

유럽축구통계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김민재는 수비수임에도 2차례 키패스를 기록했고, 팀 내 최다인 94차례 볼 터치를 했다. 공중볼도 3차례나 따냈고, 성공률도 90.2%였다.

후스코어드는 김민재에게 평점 7점을 줬다. 나폴리 선수들 대부분이 7점대를 기록한 가운데 무난한 평점을 받았다.



루치아노 스파레티 나폴리 감독도 경기 후 김민재를 칭찬했다.

그는 “김민재는 완벽했다. 모든 상황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며 “(첼시로 떠난) 쿨리발리를 다시 보는 것 같았다”고 높이 평가했다.

나폴리는 올여름 이적시장에서 핵심 수비수인 칼리두 쿨리발리를 첼시(잉글랜드)로 보낸 뒤 대체 선수로 김민재를 영입했다.

일각에선 김민재가 세리에A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첫 경기부터 쿨리발리의 공백을 메우며 기본 좋은 출발을 알렸다.

이강철·정민철·정민태·조계현, KBO 40인 레전드 가세

KBO리그에 큰 족적 남긴 투수들

‘야구는 투수 놀음’이라는 격언처럼 명투수들은 팬들의 기억에 오래 남아있다. KBO리그 40주년 기념으로 선정된 레전드 40인에도 15명(37.5%)의 투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강철(9위), 정민철(13위), 정민태(18위), 조계현(26위)도 그 일원이다.

15일 KBO에 따르면 이들 4명은 KBO리그 40주년 기념 40인 레전드에 이름을 올렸다.

선수 시절 ‘핵심수함’으로 불린 이강철은 데뷔 첫해였던 1989시즌부터 10승과 100탈삼진을 모두 넘어서면서 강인한 인상을 남겼다. 이후 이강철은 1998시즌까지 10시즌 동안 매 시즌 10승과 100탈삼진 이상을 기록, KBO리그 역대 최다인 10시즌 연속 10승 및 세 자릿수 탈삼진이라는 대기록을 모두 달성한 유일한 투수로 이름을 남겼다.

큰 무대에서도 강했다. 1996시즌 한국시리즈에서 현대를 상대로 총 6차전까지 갔던 명승부 중 무려 5경기에 등판했다. 최고의 무대에서 완봉승 1번을 포함한 2승 1세이브 16이닝 13탈삼진 평균자책점 0.56이라는 화려한 기록으로 한국시리즈 MVP로 선정됐다.

이강철은 2005시즌까지 16년간 총 한국시리즈 5번 우승, KBO 리그 통산 승리 4위(152승), 투구이닝 3위(2204 2/3이닝), 탈삼진 3위(1751탈삼진) 등 굵직한 기록을 남기며 마운드를 떠났다. 이강철은 전문가 투표 141표(72.31점), 팬 투표에서 44만6940표(8.18점)를 획득해 총 80.49점으로 레전드 9위에 선정됐다.

‘이글스의 영원한 에이스’ 정민철은 KBO 리그의 ‘황금세대’로 꼽히는 92학번(또는 입단)스타들 중 한 명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고졸 신인으로 빙그레에 입단한 1992시즌부터 33경기에 등판해 완투 11회, 완봉 3회를 포함, 14승 4패 7세이브 145탈삼진의 출중한 성적으로 롯데 고졸 신인 염종석과 경쟁했다.

정민철은 KBO리그 역대 2번째로 많은 20번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강철, 정민철, 조계현, 정민태. (사진=KBO 제공)

의 완봉승과 49번의 완투승(공동 6위)을 기록했다. 매 경기 많은 이닝을 책임졌던 정민철은 통산 투구이닝 2394¼로 이 부문 역대 2위에 자리하고 있다. 정민철은 데뷔 첫해부터 6번째 시즌이었던 1997시즌까지 매 시즌 13승 이상씩을 쌓아 올리며 같은 해 KBO 리그 역대 최연소 100승(27세 3개월 2일) 신기록을 세웠고, 해당 기록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

정민철은 전문가 투표 135표(69.23점), 팬 투표 31만4531표(5.76점), 총 74.99점으로 13위에 올랐다.

‘20세기 마지막 20승 투수’ 정민태도 레전드로 선정됐다. 대학시절부터 명성을 떨친 에이스답게 정민태는 규정이닝을 채운 1994시즌부터 재능을 꽃 피우기 시작했다. 1996시즌부터 2000시즌까지는 무려 5시즌 연속 200이닝 이상을 투구했다. 해당 기록은 KBO 리그 역사상 최동원(롯데)과 정민태 만이 달성한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정민태가 달성한 또 하나의 유일무이한 기록은 KBO 리그 역대 선발 최다 연속 기록이다. 정민태는 2000년 7월 30일 수원 두산 경기부터 2003년 8월 31일 수원 두산 DH2차전까지 무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패배 없이 선발로만 21연승을 이어가며 ‘불패’의 아이콘으로 거듭났다. 정민태는 현대 왕조의 선발 마운드를 이끌며 총 4번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정민태는 투수 개인 부문에서도 승리 1위(99, 00, 03년), 승률 1위(03년), 골든글러브 투수상(98, 99, 03년), 한국시리즈 MVP(98, 03년) 등 화려한 수상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정민철과 정민태는 현대 왕조의 나란히 KBO 리그에서 정점을 찍고 일본 무대로 진출해 요미우리에서 한솥밥을 먹기도 했다. 정민태는 전문가 투표 112표(67.44점), 팬 투표 55만8914표(10.23점), 총 67.67점으로 18위에 올랐다.

조계현은 데뷔 초기 ‘싸움닭’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물러서지 않는 공격적인 투구를 했지만, 이후 ‘팍새조’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다양한 변화구를 능숙하게 던지는 기교파의 모습을 보이며 KBO리그를 호령했다.

조계현의 커리어하이는 1994시즌으로, 18승으로 다승 부문 공동 1위에 오르고 동시에 리그에서 가장 많은 14번의 완투를 기록하는 극강의 모습을 보였다. 타자와의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던 조계현은 개인 통산 20완봉, 64완투로 각각 역대 4위, 공동 8위에 위치해 있다. 또한 1993년 8월 29일 광주 쌍방울전에서는 9이닝 10탈삼진 완투승을 거두며 KBO 리그에서 지금까지 23차례 밖에 달성되지 않은 매회 탈삼진 진기록도 달성한 바 있다. 조계현은 전문가 투표 102표(52.31점), 팬 투표 34만2254표(6.27점), 총 58.57점으로 26위에 자리했다.

2022 KBO 리그 올스타전에서 최다득표 4명의 공개를 시작으로 매주 4명씩 발표되고 있는 KBO 레전드 40인은 이번 주까지 총 20명이 선을 보였다. 앞으로 5주 동안 남은 20명이 팬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맨유 떠나려는 슈퍼스타 호날두 ‘왕따’ 전략

영국 더선 등 현지 매체 보도…올여름 이적 루머로 팀 흔들어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를 떠나려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가 선수단에서 ‘왕따’가 됐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영국 매체 더선 등은 16일(한국시간) “맨유 구단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호날두가 캐리비안 훈련장에서 혼자 점심을 먹었다”며 “구단 선수들은 물론 스태프들도 호날두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다”고 전했다.

세계적인 축구스타 호날두는 올여름 이적시장에서 맨유를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맨유가 지난 시즌 6위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1~4위만 출전권 획득)가 아닌 유로파리그에 나서자, 챔피언스리그에서 뛸 수 있는 팀으로 이적을 원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호날두를 원하는 팀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서 첼시(잉글랜드), 바이에른 뮌헨(독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 등이 호날두와 연결됐지만,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맨유 소속으로 292경기에서 11골 69도움을 올린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유벤투스(이탈리아)를 거쳐 지난 시즌 12년 만에 친정팀으로 돌아왔다.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2021~2022시즌 정구리그에서만 18골을 터뜨려 존재감을 보였다.

그러나 한 시즌 만에 상황이 급변하면서 이제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계속되는 이적 루머로 팀을 흔들었고, 새 사령탑인 에릭 텐 하흐 감독과도 사이가 틀어졌다.

주급도 맨유 선수 중 가장 많은 50만 파운드(약 8억원)를 받는다.

구단의 레전드로서 부진 탈출에 앞장서야 할 상황에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내 팀 분위기를 해친다는 평가다.

동료들의 반응도 차갑다. 사실상 왕따로 전락하면서 식사도 혼자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더선은 “호날두는 2라운드 브렌트포드전(0-4 패) 이후 텐 하흐 감독과 악수도 하지 않았고, 원정 응원을 온 팬들에게 인사하라는 스태프의 말도 무시했다. 이전 외톨이가 됐다”고 설명했다.

‘EPL 득점왕’ 손흥민 향한 ‘집중마크’ 뚫어라…콘테 해법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손흥민(30·토트넘)이 개막 2경기에서 침묵한 가운데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이 새로운 해법을 찾았을 관심이 있다.

손흥민은 지난 1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포드 브리지에서 열린 첼시와의 2022~2023시즌 EPL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다가 후반 34분 이반 페리시치와 교체됐다.

1라운드에서 사우샘프턴을 4-1로 대파했던 토트넘은 이날 첼시와 2-2로 비기며 개막 2경기에서 1승1무(승점 4)를 기록했다.

지난 시즌 첼시와의 공식전 4연패는 끊었지만, 개막 2연승에 실패한 토트넘은 손흥민의 상대 집중 견제를 뚫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첼시와 토트넘 경기 후 첼시의 제임스가 대인 방어에 손흥민을 뒤로 몰려나게 해 토트넘의 뒷공간 침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손흥민을 향한 상대의 집중 견제는 콘테 감독의 전술에도 영향을 줬다. 첼시전에서 공격이 풀리지 않자 콘테 감독은 후반 12분 라이언 세세뇽을 빼고 올여름 영입한 브라질 출신 공격수 히사롤리송을 투입했다.

그리고 3-4-3 포메이션을 4-4-2로 전환했다. 히사롤리송이 케인과 투톱을 이루고, 손흥민과 쿨루엡스키가 좌우 날개로 이동했다.

‘세계 19위’ 김주형, 임성재 제치고 한국 선수 톱랭커 등극

김주형이 임성재를 제치고 가장 세계 랭킹이 높은 한국 선수로 등극했다.

김주형은 15일(한국시간) 발표된 남자골프 세계랭킹에서 3,913점으로 19위에 올랐다.

지난주보다 순위를 2계단 끌어올린 김주형은 20위를 유지한 임성재에 앞선 한국인 톱랭커로 우뚝 섰다.

올해 초 132위에 불과했던 김주형은 꾸준한 성과로 무려 100계단 이상이나 상승, 20위 내

진입을 이뤄냈다. 지난 8일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마지막 정규대회인 윈덤 챔피언십 우승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김주형은 플레이오프 1차전인 페덱스 세인트루드 챔피언십에서 공동 13위를 차지, 페덱스 포인트 상위 70명에게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2차전 출전권도 손에 넣었다.

이경훈은 지난주와 같은 45위로 두 선수의 뒤를 이었다.